

【특별기고: 문학과 철학의 만남】

텍스트 속에 나타난 신체와 성의 문제

— 『로빈슨 크루소』를 중심으로 —

정익순 (중앙대 교양학부)

주제분
류

텍스트, 신체, 성, 부재, 침묵, 혐오, 에피소드

주요
어

바르트, 미슈레, 프로이트, 에코, 들뢰즈

요약
문

이 글은 18세기에 출판된 『로빈슨 크루소』라는 하나의 작품이 지금까지 계속 연구되고 재해석 되는 이유를 찾아서 현대의 관점에서 보는 텍스트에 나타난 신체와 성의 문제로 연결시키려 한다. 하나의 소설작품이 텍스트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소설이 텍스트로서의 근본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과 소설로서의 현대성과 작품성의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텍스트 속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허구의 형식과 내용이 사건으로 나타나지만 현대의 비평과 해석의 문제와 관련된 에피소드의 이야기로 새롭게 독자에게 전달된다. 그 이유는 소설이라는 형식과 내용이 백과사전적인 텍스트로서 여러 가지 사실이 담겨져 있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밝혀야 할 텍스트가 부재와 침묵의 대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텍스트에 담겨진 부재와 침묵의 문제는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내밀하게 작용할 때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로빈슨 크루소』의 경우 이러한 사실은 저자의 의도와 작품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에피소드가 오늘날까지도 새로운 해석과 발견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장소이며 텍스트 그 자체로 변형되기도 한다. 역사적 혹은 문화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비평이론가들은 『로빈슨 크루소』가 이에 해당되는 어떤 동기와 해결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은 이 작품 속에 특이한 사실이 존재하고 있는 부재와 침묵 속에 나타난 텍스트의 신체와 성의 문제라는 주제와 연결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1. 들어가는 말

‘문학과 철학의 만남’이라는 기획으로 글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선뜻 응한 것이 화근이라면 화근일 것이다. 설사 기획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있었다고 해도 철학의 문외한인 나로서는 이를 감당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승낙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묘한 객기가 발동되어 누군가가 되었건 이 작업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는 나의 고집스러운 신념이, 물론 기획 의도하고는 거리가 먼 결과가 되고 말았지만, 이러한 무모한 도전을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이 글이 철학적인 논의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는 점을 우선 밝혀두고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18세기로 접어들면서 서구인에게 근대문명의 기원을 보여주었던 『로빈슨 크루소』에 나오는 로빈슨은 허구의 인물로 소설 속에서 출현했지만 그는 우리에게 문화와 역사의 거울로서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는지를 보여준다. 로빈슨은 신화적인 인물인 동시에 개인주의와 리얼리즘의 형식과 내용 속에서 근대 문명을 만들어가는 신화의 인물로 영국 상인의 서사를 구현한다. 그러나 독자들이 자유롭게 상상 속의 여행을 꿈꾸도록 만드는 『로빈슨 크루소』는 처음부터 텍스트의 침묵과 부재의 문제와 이중적이고 모순된 성격을 지닌 로빈슨이라는 인물을 만들어 낸다. 여기서 로빈슨이 보여주는 모순된 성격은 섬이라는 장소에 그가 감금됨으로써 나타난다. 즉 로빈슨이 난파된 섬은 식민지 개척의 역사, 한 인간이 부를 축적하는 성공신화, 삶의 영원한 안식처로서의 장소, 여행과 모험의 이야기, 고독한 유흥지에서 이상적인 유토피아의 건설, 공포 속에 드러나는 꿈과 악몽, 에덴동산에서의 인간의 고독, 사회와 분리된 불안정한 인간의 노동과 자유, 그리고 여성이 부재된 침묵과 성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는 로빈슨을 경제적인 개인주의의 토대에서 분석하는 이언 와트의 방식과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로빈슨은 영국의 중류계급 출신으로 식민지 개발에 참여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평범한 사람의 성공을 실현하기 위해 위험한 항해를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형적인 신흥시민의 모범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로빈슨은 근대 혹은 현대 서구 사회의 경제적 성공의 꿈에 부응하는 신화의 주인공이다. 현재도 우리는 로빈슨을 영국 식민지 개척자의 전형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로빈슨은 남성적 독립, 무의식적인 냉혹함, 섬에서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성적인 무관심과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경건한 신앙심 그리고 섬에서의 생활을 빈틈없이 해결해나가는 경제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으로만 보여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E. M 포스터가 지적하는 것처럼 영국적인 상황 속에서 식민지에 대한 모험과 탐험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만약 이러한 이야기가 영국적인 상황이 아니라 다른 장소, 관점, 혹은 입장이라면 이러한 계보는 지금까지 이 작품에 대한 다양한 다시 쓰기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기원이나 신화의 소설로 재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독자들은 지속적인 변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 다른 『로빈슨 크루소』를 끊임없이 만나게 된다.

이와 같이 『로빈슨 크루소』는 18세기와 19세기에 만연되었던 제국주의적이고 식민주의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에서부터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부재, 침묵, 그리고 성의 문제를 보여주는 로빈슨류(Robinsonade)의 소설에 재등장하는 인물로 다시 태어난다. 다시 말해 어린 시절 성욕을 모르고 성인문학을 보는 루소의 『에밀』

의 독자에서부터 저자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텍스트로 바라보는 독자나 비평가의 관점에 사회, 문화, 정치, 그리고 경제의 현상을 첨가하면서 『로빈슨 크루소』를 다시 해석하는 것으로 발전한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러한 문제는 18세기의 비평가 찰스 길턴에 의해 제기되고 19세기에는 루소에 의해 발전되어 오다가 오늘날의 문제에 이른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은 『로빈슨 크루소』가 인간에 대한 주제를 다양하게 만드는 가능성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면 피에르 마슈레는 『문학생산이론을 위하여』에서 이 작품이 ‘불완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비평의 영역이 되었다는 것과 근대적 개념의 인간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비평의 주제적 선조’(270)가 된 것으로 이해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작품은 멈추지 않고 편력하게 된다’(29)는 입장에서 이 작품이 기원의 이데올로기와 로빈슨이 난파된 섬이 역사 이전의 형태이기 때문에 신화처럼 부정확한 독서에 의해 왜곡될 문제들이 생긴다는 점을 지적한다(271). 마슈레의 이러한 지적은 작품이 이상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것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로빈슨 크루소』의 경우 작품 자체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 속에 나오는 불안정한 이야기는 꾸준히 해결되고 있으며 그렇게 됨으로써 작품의 내용이 크게 열린다. 이 작품은 인간의 꿈과 희망을 보여주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이나 기준에 따라 불안정한 이야기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는 움직임에 의해 활기를 띤다.

『로빈슨 크루소』는 사이트의 지적처럼 사상이나 이론이 이 사람 저 사람으로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저 상황으로 또한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이동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기원의 지점, 사상이 생성되어 담론으로 되는 일련의 상황, 시간과 맥락을 횡단하는 거리, 사상의 도입이나 목인을 가능케 하는 저항이나 수용조건들이 새로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변형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작품은 이동하는 장점이 있고 텍스트로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적어도 새로운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2. 『로빈슨 크루소』를 응시하는 독자와 텍스트의 문제

롤랑 바르트가 『텍스트의 즐거움』에서 지적한 것처럼 글쓰기란 모든 목소리, 모든 기원의 파괴를 의미한다. 글쓰기는 우리의 주체가 도주해 버린 중성, 복합체, 간접적인 것이기 때문에 글쓰기는 결정체성을 상실하는 저자의 목소리로 생각 할 수 있다. 바르트는 이것을 저자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단계에서 글쓰기로 나타난다고 본다. 이것이 텍스트의 즐거움이며 이런 현상에 대한 감정은 다양하다. 저자의 의미가 현대에 와서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저자란 중세를 벗어나자마자 영국의 경험주의와 프랑스의 합리주의, 종교개혁의 개인적인 신앙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개인의 명성을 좀 더 고상하게 말한다면 인격이라는 것을 발견한 후에 생산된 현대적인 인물이다. 그러므로 문학 안에서 저자가 인간에게 최대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요약이자 귀결인 실증주의라는 것은 지극히 논리적이다. 저자는 아직도 문학사의 교과서나 작가의 전기, 잡지의 대담, 그리고 자신의 내적 일기에 의해 그들의 인간과 작품을 연 결시키려는 문학가들의 의식 속에서도 여전히 지배적이다.(28)

여기서 바르트는 문화 안에서 발견되는 문학의 이미지가 저자, 인간, 생애, 취향, 정념에 집

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18세기 소설의 산물인 『로빈슨 크루소』도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 쪽에서 의미 찾기가 모색되었다. 하지만 바르트는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의 텅 빈 과정, 즉 저자의 목소리 때문에 항상 저자가 존재하는 곳에서 파생된 2차적인 글쓰기를 통해 독자의 자리를 회복하자고 주장한다. 텍스트를 쓴 저자와의 멀어짐을 통해 저자를 문학적 무대 저 끝에 있는 단역배우로 축소하기, 텍스트의 유일한 의미를 근원적이지 않은 다양한 글쓰기로 결합하고 다차원적인 공간을 만든다. 이러한 글쓰기를 계승한 저자는 더 이상 그의 마음속에 정념이나 기분, 감정,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하나의 거대한 사전을 가지고 글쓰기를 한다. 바르트는 저자의 죽음을 통해 진정한 독서의 장에 독자의 입장을 위치시키고 텍스트가 수많은 문화에서 만들어진 복합적인 글임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과연 소설속의 독자는 누구인가? 만약 텍스트가 표현장치에 의해 에피소드나 사건의 계열로 나타나면 텍스트의 불안전함은 불완전한 이야기로 읽혀진다. 움베르토 에코의 지적처럼 텍스트는 언어적 대상물이면서 개별 어휘와 문장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모든 메시지는 독자와 관련된다. 하나의 표현은 주어진 코드를 근거로 그 관습화된 내용과 상호 관련될 때까지 단순한 목소리로 남아 있다. 텍스트는 복합성으로 인해 백과사전적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독자는 백과사전적 지식을 가지고 소설 속에 나오는 본질적이고 우발적인 특성들의 함축된 주제를 생각한다. 에코는 텍스트가 빈 공간들, 채워야 할 틈새들로 짜여있기 때문에 생성된 독자와 텍스트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로 텍스트란 수신자에 의해 도입되는 의미의 잉여 가치로 살아가는 게으른 장치이다. 단지 극도의 세심한, 극도의 설명적 염려 또는 극도의 억압성의 경우에만 텍스트는 지나친 설명과 과잉들로 복잡해진다. 극단적으로는 정상적인 대화 규칙들이 위배될 정도로. 둘째로 텍스트는 설명적 기능에서 점차 미학적 기능으로 이행함에 따라 비록 대개의 경우 충분한 단일 의미성의 한계와 함께 해석되기를 원할지라도 독자에게 해석적 주도권을 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텍스트는 누군가가 자신이 기능하도록 도와주기를 원한다(82-83).

에코의 텍스트와 독자에 대한 설명을 통해 우리는 텍스트가 독자에게 의사전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독자가 텍스트를 통해 의미작용에 대한 가능성도 필수적으로 공유할 조건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작가는 사회학적 현명함과 탁월한 통계적 평균치를 갖고 자신의 모델 독자를 고정시키기 때문이다. 소설을 쓰는 작가는 모든 어린이와 어른을 하나의 표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용어, 언급방식을 통해 백과사전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정확한 효과를 사용하는. 작가는 다양한 층위를 명제로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반응을 촉발하며 그는 그 게임을 통해 작품으로 성공한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할 점은 독자는 가로질러 읽기, 행간의 해석, 상투어 음미, 더듬거리는 텍스트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즉 억압적이고 닫힌 텍스트는 백과사전적으로 해석하는 독자에 의해 열리고 모험들을 생성하는 장치가 된다. 『로빈슨 크루소』의 디포처럼 작가는 에코가 생각하는 모델 독자를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다. 결국 역사적 분석의 결핍, 기호학적 평가의 오류, 문화적 편견, 수신 상황에 대한 과소평가의 문제가 생기고 작가가 만들어 놓은 텍스트의 전략과 폭력도 사라진다. 그러나 바르트가 말하는 저자의 죽음과 에코의 작가에 대한 고유 전략의 법칙은 오늘날 『로빈슨 크루소』를 분석하는 기본이 된다. 다시 말해 백과사전식으로 단어를 나열하는 작가의 전략 속에는 부재하는 어떤 사실이 존재하며 그것은 독자의 무한한 기호 작용의 유희를 확대한다.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에르 마슈레의 이론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작품은 멈추지 않고 편력한다는 의미는 작품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작품 속에는 생각할 이론적 명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평가의 담론 전개에 따라 작품에 접근하는 탐색과 명제는 다른 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그것들은 작품을 비난하는데 사용됨에 따라 작품을 왜곡하는 외적인 판단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명제는 작가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하며 독자를 감화시키고 작가의 담론을 작품 속에서 발견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긴 관념은 작가의 이데올로기적 상황에서 벗어나게 만들며 다른 가치와 의미를 독자가 받아들이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마슈레는 이 원리로부터 구성된 작품이 왜곡된 작품, 즉 어떤 담론의 가정 하에 이러한 담론의 성격 문제가 제기하는 새로운 비평을 만든다고 설명한다.

책이 말하는 것은 어떤 침묵에서 비롯된다. 즉 책의 출현은 어떤 침묵의 현존을 내포한다. 따라서 책은 그 자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책은 필연적으로 어떤 부재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 부재 없이는 결코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책의 이해는 역시 이 부재의 고려를 내포한다. 그래서 책이 암암리에 내포하는 것 즉 책이 말하지 않는 것을 모든 생산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는 것은 유용하고 정당한 것 같이 보인다. 명백한 것은 주위에 혹은 그 뒤에 함축적인 것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말하기 위해 말해서는 안 되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다(103).

모든 말의 본질에는 침묵이 있다. 말해지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을 숨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 침묵은 표현의 근원이지만 작품은 그것을 숨기지 않는다. 이러한 침묵은 작품을 응시하는 독자와 비평가의 반응을 끌어들이는 중심이며 극단적인 상황의 지점이다. 이렇게 독자나 비평가는 잠재적인 것과 숨은 것에 의지함으로써 부재하는 언어와 표현을 통해 텍스트의 부재와 침묵을 밝힌다. 그들은 형식과 내용을 다시 쓰거나 재현의 문제에 결부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그들의 방법에 의해 우리는 텍스트의 기원과 창조의 개념에 대한 모호성을 다시 발견한다.

그렇다면 작품 속에서 중요한 것은 작품이 말하지 않는 부분이다. 그것은 급속히 행해진 묘사 같은 것이 아니라 작품이 말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나 그 자체 속에 흥미나 시선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곳이다. 또한 명백히 노출되지만 은밀한 침묵으로 나타나는 작가의 작업은 문학 생산의 특수한 영역에서 정당하게 적용되어 검토할 수 있는 일반성이다.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의 경우 그러한 문제는 부분적인 사건 속에서 은밀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침묵과 부재의 개념은 억압대상과 같은 의미인데 디포는 그의 작품에 이러한 사건을 표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검열의 산물인 완곡어법으로 한계를 극복하려한다. 결론적으로 디포는 작품 속에서 자신의 입장은 물론 로빈슨의 삶의 과정을 도식화한다. 이렇게 로빈슨의 섬 생활을 통해 고립된 인간의 생활을 보여줌으로써 작가는 담론의 가장 특수한 속성과 내용 그리고 형식을 생산하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고 자신의 작품에 대한 내적 분석과 외적 분석 사이에 대립도 만들어 낸다.

3. 다시 태어나는 로빈슨의 에피소드

『로빈슨 크루소』는 출판 이후 끊임없이 재구성이나 재해석되면서 소설의 재생산 공장이 된다. 1986년 『적대자』를 출간한 존 쿿시는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는 ‘침묵과 숨겨진 장면이 있는데 작가 디포는 이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4). 디포의 『로

빈슨 크루소』가 재생산된다는 것은 소설의 이야기 중심부에 나타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디포의 작품을 정리하고 비평한 패트 로저스도 『로빈슨 크루소』에 나오는 로빈슨이야말로 ‘모든 산문 소설 중에서 가장 심층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한다(vii). 로빈슨은 강력한 육체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먹고, 마시고, 잠자고, 병들고, 공포와 고통을 느끼는 전형적인 인물이며 섬 생활에서의 성이 부재되어 있어도 시간과 내용상 독자로 하여금 그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만든다. 그래서 로빈슨이 경험하는 성과 신체의 문제 그리고 그의 욕망이 현대 독자와 비평의 중심 문제로 다시 부각된다. 이런 관계는 로빈슨이 식인종의 식인행위를 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한 광경을 직접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나는 오랫동안 정말로 위험하다는 생각 이외에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나의 모든 판단력도 잔인하고 섬뜩한 잔인함과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여 만들어낸 공포라는 생각 밖에는 할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는 종종 들었지만 전에 그런 것을 직접 본적은 없었다. 나는 그 끔찍한 장면을 외면하였다. 배가 울렁거렸고 기절할 것만 같았다. 위에서 이상한 물질이 나오고 너무 잔인함에 구토를 한 다음에야 나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더 이상은 잠시도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다시 언덕위로 급히 올라가 나의 피신처로 발걸음을 옮겼다(120).

로빈슨의 이러한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혐오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 크리스테바는 『공포의 힘』(1982)에서 이 개념을 잘 정리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혐오란 정체성, 제도나 체계 그리고 질서에 혼란을 주는 혐오와 연관된 불안한 마음을 말한다. 이것은 감정과 사유가 꼬인 상태를 말하며 정의할 대상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로빈슨이 식인종의 식인행위를 보는 것은 이러한 혐오의 대상을 독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자신이 만들어낸 글쓰기의 전략에 독자를 끌어들이는 방법이다. 그런데 식인종의 식인 행위는 인간에게 혐오감을 주지만 그것은 인간의 신체와 성에 대한 욕망을 그대로 표현하는 자연의 섭리와 타자의 의미가 부재와 현존의 의미 속에 공존하고 있음을 크리스테바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혐오는 내가 직면한 혐오 대상은 아니지만 나는 명칭을 부여하거나 상상한다. 그것은 욕망의 체계적인 탐색 속에서 끊임없이 사라지는 타자성처럼 희롱의 대상도 아니다. 혐오란 나와 상관관계가 없으면서도 누군가에게 혹은 증거로 다른 어떤 것을 제공하여 나를 어느 정도 초연하고 자율적이게 해준다. 혐오는 대상인 나와 대립되는 특징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1).

크리스테바가 생각하는 혐오란 음식물 혐오감 같은 기본적인 형태이다. 여기서 그녀는 혐오를 음식, 오물, 폐기물 혹은 인간의 변과 같은 전형적으로 자아와 비 자아 사이에서 발견되는 모호한 실체와 연관시킨다. 로빈슨이 식인행위를 바라보며 느낀 혐오는 ‘초기억압의 경계인 대상 아닌 대상을 위한 기호의 원천이며 초기억압의 대상’이다(11, 12). 초기의 억압 대상이란 대상 사이에 끼어있는 어떤 것, 애매한 것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혼합물이다. 오늘날 혐오의 개념은 변칙적인 현상들과 대치되어 일어난다. 즉 로빈슨이 응시하는 식인행위는 경계선을 넘어선 대상이나 사건의 현상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경계 사이에 끼어 있는 특정한 실체, 즉 로빈슨의 경험이 자아로 생성되면 사건이나 인물이 가진 수행능력과 효력에 문제를 일으킨다. 반대로 주디스 버틀러는 우리가 배제시켰던 타자의 문제는 제도권의 인습에 의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즉 타자의 문제와 타자

에 대한 억압은 명백한 금지행위이지만 생존 가능한 주체들의 구조와 생존가능하지 않은 (비)주체들의 영역에 대한 추론적 결과의 구조를 통해 작동 된다(20).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에 나오는 로빈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토착민의 식인 행위에 혐오감을 가지는 것도 그의 존재목적이고 동기이다. 로빈슨은 문명인으로서 비문명의 세계에 들어가 있다. 크리스테바의 설명처럼 그가 느낀 혐오의 의미는 ‘순수한 타락 속에서 사라진다’(18). 다시 말해 순수한 타락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로빈슨은 도덕적 한계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로빈슨이 느낀 혐오에 의해 제기된 문제는 사회적, 종교적, 가족적, 그리고 개인의 한계 속으로 독자를 속박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의 표현은 거부된다. 그리고 그는 표현 불가능의 근원을 배제된 타자와 그에 대한 혐오를 통해 히스테리적인 반응, 사회적 체계와 질서만을 이용해 사건 외부의 의미를 전달한다. 결국 토착민의 식인행위의 장면에 대한 로빈슨의 반응은 혐오를 실현하는 것이며 로빈슨이 경험한 것을 독자가 표면적으로 상상하게 만들 뿐이다. 로빈슨이 구원한 프라이데이도 야만인에 지나지 않는다. 로빈슨은 프라이데이가 언제나 자신을 잡아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독자가 이러한 느낌을 갖는 것은 로빈슨이 공포를 통해 정신분열적인 징후와 현상 그리고 식인행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빈슨은 타인의 섬에 존재하는 이방인이다. 그는 동족끼리 잡아먹는 식인행위를 실천하는 야만인을 본다. 그는 여성이 부재된 섬에 문명화된 유럽 남성의 시선으로 프라이데이를 응시하는 동시에 그를 야만인으로 생각한다.

나는 프라이데이에게 해골, 뼈다귀 그리고 육신의 살과 나뉘지 것을 모두 모으도록 시켰다. 그런 다음 한 곳에 모두 쌓고 그 위에 불을 지펴 모두 태워 재로 만들었다. 나는 프라이데이가 여전히 인간의 육신을 보고 먹고 싶어 한다는 것과 그의 본성에는 아직도 식인행위가 남아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내가 그런 생각에 혐오감을 느낌과 동시에 그런 모습을 내색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은연중에 만약 그가 그런 짓을 한다면 내가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게 했다(150).

이와 같은 로빈슨의 행동은 식인행위와 동성애에 대한 공포를 텍스트의 중심인 로빈슨의 의식으로 연결해준다. 그러나 남성과 남성과의 관계로 두 사람을 볼 때 이브 코소프스키 세지윅이 말한 ‘동성애자의 공포의 의미’에서 두 인물의 관계는 재해석 되어야 한다(188). 섬에 남성만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체계적인 공포, 신체와 성의 문제에 의해 설명될 필연성이 있다. 이것은 서양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느끼는 공포와 불신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작가 디포는 완곡어법으로 주인과 하인, 혹은 타자를 바라보는 문명인의 의지를 드러내는 이데올로기를 보일 뿐이다.

섬에 있는 두 남성의 동성애는 정체성이 없는 지형적인 위치에 고립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위치적 특성 때문에 로빈슨의 정체성 찾기와 성에 대한 필사적인 방어는 합리화된다. 그리고 로빈슨이 응시하고 표현하는 프라이데이의 매력은 혐오감, 공포 그리고 위협의 요소로 나타난다. 이것은 작가 디포의 담론 전략이며 서양인이 성의 부재를 검열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 하였던 방법이다.

이러한 동성애에 대한 역학관계는 로빈슨이 프라이데이를 구출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다. 물론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로빈슨은 해변에서 식인종이 거대한 식인의 향연을 벌인 흔적을 발견한 다음 프라이데이를 구출한 것이기 때문에 로빈슨은 문명인으로서 식인종의 흠어진 육신들을 거두어 화장시켜준다. 하지만 로빈슨은 프라이데이가 정말로 인간의 육신을

먹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를 대지 못한다.

문제는 로빈슨이 프라이데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데 있다. 그렇지만 이 장면도 로빈슨의 편집증적인 생각이다. 그는 프라이데이를 죽일 수도 있다. 프라이데이의 식인 행위와 동성애적인 공포에 로빈슨이 두려움을 느꼈다면 그들의 관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로빈슨은 프라이데이의 주체성을 파괴하지 않는다. 단지 프라이데이는 그가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식인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변명만 있을 뿐이다. 이와 동시에 로빈슨은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 프라이데이가 행동할 수 있는 식인행위의 가능성과 동성애적인 욕망을 독자에게 투사한다.

이러한 로빈슨의 정신분열적인 증세는 프로이트의 성과 식인행위에 대한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그의 『토템과 타부』(1913)에서 문화의 시작과 신화가 왜 식인행위와 동성애 간의 욕망과 연결되는지 설명한다. 여기서 프로이트는 원시사회의 예를 들고 있는데 원시사회의 경우 가부장적인 체계로 인해 남성인 아버지는 그가 잡아오거나 거느리고 있는 여성들을 통제하기 위해 자식들을 밖으로 몰아낸다.

그런데 동성애 간의 관계가 더 이상 없어진 아들은 동성애의 욕망 때문에 서로 단합한다. 결국 언젠가는 아버지로부터 쫓겨난 형제들끼리 힘을 합치게 되고 아버지는 살해당하고 자식들에 의해 잡아먹힌다. 그리고 가부장적인 집단은 해체된다. 폭력적이었던 최초의 아버지는 의심의 여지없이 공포를 느낄 것이고 집단을 이루고 있는 자식들이 만든 삶의 형식을 부러워한다. 그러나 아버지를 먹는 행위를 통해 자식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며 자식들은 권력의 부분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프로이트가 설명하는 식인행위는 또 다른 것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식인행위를 통해 개인의 몸의 일부를 통합하게 됨으로써 자식은 소유할 자격을 얻는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 권력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식인과 희생이라는 두 개의 부분은 하나가 완성됨으로써 다른 하나를 얻게 되는데 이때 희생자의 죽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원시사회의 인간은 욕망에 의해 식인행위가 소멸된다.

그렇다면 사람의 육체를 먹는 식인행위는 곧 자신의 정체성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원시 사회에서 식인행위는 역학관계일 뿐이다. 원시인의 자기 정체성은 처음부터 애매하다. 왜냐하면 이들의 정체성은 누군가를 제거하는 욕망처럼 그것을 애정과 권력의 표현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역학관계를 『집단 심리와 에고분석』(1974)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가 열망하고 높이 평가하는 대상은 식인행위에 의해 동화되고 그런 방식으로 억압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인행위는 이러한 관점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적대자들을 게걸스럽게 먹어치우는 성격의 소유자이며 자신에게 호의를 가진 사람들만 먹어치우기 때문이다(108).

이러한 정체성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해해야 한다. 우선 프라이데이의 경우 그의 정체성은 로빈슨에 의해 만들어진다. 로빈슨은 프라이데이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한다. 그런데 로빈슨은 식인행위에 대한 혐오감을 갖는 것 그리고 식인행위와 동성애에 대한 공포를 느낌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한다. 다시 말해 로빈슨은 유럽인의 기호에 맞게 자신도 인간의 육신을 먹을 수 있다는 것과 동성애를 할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합법화시킨다. 그렇게 됨으로써 신세계에 살고 있는 식인종이 식인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유럽인의 눈으로 해석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독자는 텍스트와 식인종에 대한 것만을 인식하기 때문

에 인간의 주체인 신체와 성에 대한 문제는 배제된다. 이제 여성이란 주체는 섬에 존재하지 않고 식인행위는 남성과 남성간의 관계로서만 가치를 가진다.

『로빈슨 크루소』에 나타난 식인행위는 신체와 성의 문제를 거세한 남성 사이의 동성애의 경계에서 만들어진다. 이때 발생하는 식인행위는 근본적으로 남성들 사이의 성에 대한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유럽인의 우월성, 계몽주의 그리고 그들의 주체성을 증명하며 동시에 인간이 잡혀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통해 공포를 느낄 뿐이다. 우리가 보는 로빈슨은 보통 인간이다. 하지만 로빈슨은 영국을 떠나 외국을 전전하다가 섬에 난파되어 식민주의자가 되어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보통 인간이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부장적인 영국인이다. 그러나 로빈슨은 이성적인 남성이면서도 주체성을 유지해나가는 불안정한 상징의 인물이다.

결론적으로 『로빈슨 크루소』는 식인행위, 그리고 신체와 성이 재현하는 불안과 욕망을 해결하지 못한다. 이 소설은 그러한 사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그 텍스트 속에는 인간의 긴 역사와 문명을 증명할 그림이나 삽화, 모험에 대한 여행책자, 소설 그리고 영화와 같은 곳에서 그것을 회화시키면서 재생되고 재해석되는 남성간의 성, 야만인의 별거벗은 모습 그리고 이들의 식인행위에 대한 해석의 연결고리만을 만들어 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개인주의를 실현한 소설의 시작과 신화로 간주된다. 그것은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안정된 삶에 대한 문화적 불안을 일반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소설이 개인주의적인 주체성과 정체성의 요소가 부족한 것과 로빈슨이라는 인물이 자아를 채우지 못하는 동성애에 대한 욕망은 우리가 풀어야 하는 현대비평과 다시쓰기의 영역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4. 로빈슨과 프라이데이와의 억압관계

18세기 소설이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산물이듯이 사실적인 것이 들어있건 아니건 당시의 소설가들은 내러티브의 형식을 갖추어야 했다. 소설의 형식으로 볼 때 『로빈슨 크루소』에는 성의 욕망이 부재되어 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인 로빈슨의 꿈, 불안한 마음의 표현, 희망, 그리고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표현된다. 다만 이러한 요소들이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라는 기호화된 방식으로 소설의 무의식적 의미를 찾고 그것을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에 들어있는 무의식적 요소를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로빈슨이 개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정신과정도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사건을 주체화의 문제로 다루었던 푸코처럼 오늘날 비평가와 철학자는 무의식과 정신작용의 시발점으로 신체의 형성에 초점을 맞춘다. 전통적인 철학에서는 신체의 문제가 그 자체로 다뤄진 경우는 별로 없다. 과거에는 신체가 단지 권력의 작용점으로 다루어졌을 뿐이지만 이제는 신체가 주체화가 시작되는 장소이며 저항의 시발점으로 기능하는 장소가 된다. 18세기의 소설이 현대에 와서 변형되고 재해석되듯이 철학에서도 신체의 문제는 인간을 사유의 대상으로 정의해온 서구 철학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런데 현대 철학에서 신체의 문제는 전통적인 반성철학적인 구도와 전혀 다른 구도에서 새롭게 제시된다. 즉 오늘날의 철학자들은 신체의 내면만을 바라보지 않고 분석의 틀을 성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와 연결하여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 이제 성과 신체의 문제를 주체의 문제로 삼는 것은 이러한 지적 작업을 통해 주변성, 제도, 정치를 권력의 관

계로 개념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이상적인 유토피아의 실천에 대한 반성을 의미하며 현대 문명이 새롭게 제기하는 여성, 성, 의학, 정신병, 환경, 소수민족, 범죄의 문제에 대한 억압 관계를 찾아 새로운 인식들을 마련하려는 노력이다.

현대 문명에서 성은 지하에 감추어져 있지 않다. 반대로 성은 계속 논의되며 탐구된다. 이것은 권력과 성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권력은 제한하는 힘이고 성은 사회적 힘에 제한받는 충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의 문제가 권력 속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사회적 구성물이기 때문에 해방될 수 없는 생물학적 자극으로는 더 이상 보지 않는다. 성의 문제가 인간경험의 핵심이라는 프로이트의 결론처럼 성적 관용이 18세기 소설처럼 부재와 침묵의 문제로 더 이상 남을 수도 없다.

『로빈슨 크루소』에서 이러한 부재와 침묵의 문제는 로빈슨이 프라이데이에 대한 꿈에서 시작된다. 로빈슨은 프라이데이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이 야만인을 구출하는 꿈을 꾸다. 그리고 실제로 프라이데이는 꿈에서 보았던 모습을 로빈슨 앞에서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나는 은신처에서 평소처럼 아침에 걸어 나왔다. 나는 해안에 두 개의 카누에 올라탄 11명의 야만인들이 해안으로 상륙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한 명의 야만인을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를 잡아먹기 위해 야만인을 죽일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야만인이 죽으려 했던 그가 벌떡 일어나더니 죽을힘을 다해 뻘뻘한 작은 숲속으로 달려오더니 내가 만든 요새 속으로 피신했다. 나는 그가 혼자라는 것을 알았고 아무도 그곳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에게 길을 알려주면서 그를 돕겠다는 표시로 미소를 지으며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그는 나에게 무릎을 꿇고는 자기를 도와 달라고 애원하였다. 그에게 나의 사다리를 보여주고 올라가라고 하면서 그를 동굴로 안내했다. 그는 나의 하인이 되었다(144).

이것은 로빈슨의 애매하고 성적인 욕망을 표현하는 예를 인용한 부분이다. 로빈슨이 꾸는 꿈은 분명히 개인적인 욕망과 연관된다. 그것은 동료에 대한 그리움, 하인을 부리는 것과 섬을 탈출하려는 것이다. 한 명의 하인을 두고 섬의 자원을 경작하게 만들어 섬의 주인 행세를 하고 정복자의 모습을 보이는 이 부분을 로빈슨은 꿈에서 본다. 또한 이것은 성적인 요소도 있다. 로빈슨이 프라이데이를 구출한 것은 우연한 사건의 계기로 이루어진 에피소드이지만 『로빈슨 크루소』가 출판된 이후 이 부분이 의문과 호기심을 가지고 재생산되었다. 예를 들면 로빈슨이 프라이데이를 자신이 살고 있던 동굴로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은 일종의 성적인 유혹이다. 식민주의자와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로빈슨을 생각하면 그는 분명히 한 명의 하인과 아내를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간 것이다.

이와 반대로 로빈슨이 구출한 프라이데이의 행동도 성적 유혹의 전형이다. 그의 행동 또한 지극히 성적인 충동을 느끼게 한다. 로빈슨의 발에 자신의 머리를 대는 행위는 로빈슨이 원하는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설명한다. 프라이데이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주체성을 거부하고 로빈슨의 노예와 몸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준다. 프라이데이가 로빈슨의 신체가 되는 것은 유럽인의 우월성을 인식시켜줄 뿐이다. 이제 로빈슨은 자유롭게 욕망한다. 프라이데이가 제공한 노예와 신체는 성적 관계의 잠재성을 제공하는 기호이다. 그것은 로빈슨과 공유되며 동성애의 욕망을 실천하는 기호이다.

이러한 감정의 구조가 18세기 소설 속에 침묵과 성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로빈슨 크루소』에서는 이러한 통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라이데이는 타자로서 자연스럽게 행동한다. 로빈슨이 프라이데이에게 신체의 일부를 허용하는 것과 그것을 로빈슨이 받아들

이는 행위는 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상호간의 접점이다. 이제 주인 없는 노예의 관계는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로빈슨과 프라이데이의 정체성은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로 발전된다.

로빈슨의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는 유토피아의 이상이며 원초적인 성적 관계이다. 분명한 것은 나체의 모습을 한 프라이데이를 로빈슨의 복장과 비교할 때 성적인 잠재성은 가득 차 있다. 프라이데이가 로빈슨을 주인으로 부르자 그는 전율한다. 한 개인이 사랑할 대상을 찾으면 나르시시즘이 작동된다. 프로이트는 『나르시시즘에 대한 소고』에서 ‘개인은 타인에 들어있는 에고의 거울을 찾음으로써 자신의 자아를 완성한다’(73)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로빈슨은 프라이데이를 자신의 이미지로 만들고자 한다. 타자이면서 노예인 프라이데이는 타자 아닌 타자가 된다. 여기서 타자란 프라이데이를 말하지만 로빈슨의 변형된 자아나 또 다른 인물일 수도 있다. 프로이트의 이론으로 볼 때 프라이데이는 로빈슨의 성적 대상이다. 그러나 질 들뢰즈는 『의미의 논리』 부록 「타자 없는 세상」에서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한다. 다시 말해 로빈슨의 섬은 타인인 프라이데이에 의해 새로운 세상이 된다. 로빈슨이 식민주의적인 관점에서 난파된 섬을 개척한다면 그것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대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로빈슨이 섬에서 동성애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정신분열자의 행동으로 해석하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프라이데이가 만들어가는 또 다른 세상을 말한다.

프로이트의 이론으로 보면 로빈슨에게 프라이데이는 식인종과의 관계이다. 이와 같이 로빈슨과 프라이데이는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진다. 결국 로빈슨은 프라이데이를 타자 아닌 타자로 만드는데 그것은 로빈슨이 식민주의자, 가족지상주의자 그리고 성적 결핍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로빈슨이 프라이데이에 대한 육체적인 모습을 말할 때 다음의 사실은 18세기 담론 전략이 식민주의자의 열망, 성적인 문제 그리고 노예와 남색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부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는 늘씬하고 잘 생긴 사내였다. 사지가 튼튼하며 체구는 크지 않지만 키는 컸고, 내 추측으로 나이가 26살쯤 되었다. 외모도 사납거나 심술궂지 않고 유럽인처럼 부드럽고 상냥했다. 머리칼은 길고 검은 빛이었으나 양모처럼 곱슬머리는 아니었다. 이마는 시원하게 넓고 눈에는 활기가 넘치며 반짝반짝 빛났다. 피부 색깔은 새까만 것이 아니라 짙은 갈색으로 브라질이나 버지니아 등 아메리카 토인들처럼 추하거나 노랑거나 기분 나쁜 여러 색과는 달랐다. 마땅한 비유는 없지만 비슷한 색으로 비교하자면, 일종의 밝은 암갈색 올리브 색깔이었다. 얼굴은 둥글고 토실토실하며 코는 보통 판판한 흑인과 달리 작았다. 이빨도 잘생겼고 입술은 얇고 가지런한 이가 상아처럼 희었다 (148-9).

위의 인용문처럼 이 글에서 지금까지 주장해온 로빈슨과 프라이데이의 성적인 관계는 분명해진다. 로빈슨이 프라이데이를 구출할 때부터 그는 이미 유럽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의 넓은 이마, 곱슬머리가 아닌 머리카락, 적당한 크기의 코와 피부는 유럽인의 얼굴로 정확하게 묘사된다. 로빈슨은 프라이데이를 신세계의 원주민으로 그리지 않는다. 로빈슨은 자신의 이미지를 변형시켰고 프라이데이를 노예와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다. 로빈슨은 프라이데이의 모습과 그의 행동에 맞추어 문화의 기호인 언어, 의복 그리고 종교를 전달한다.

로빈슨의 행동은 영국 문화의 우월성과 식민주의자의 계획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프라이데이가 유럽인의 모습과 성격을 보여주는 것은 소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실주의이며 이

데올로기적 종속이다. 작가 디포는 자신이 생각하는 야만인 프라이데이를 등장시킴으로써 로빈슨과 작가에게 순종하고 봉사할 수 있는 야만인을 소설의 중심에 위치시킨다. 그렇게 됨으로써 로빈슨의 성적인 부재와 식민주의자의 이상을 충족시킨다.

로빈슨과 프라이데이의 관계는 로빈슨류의 소설에 여성으로 등장하게 한다. 예들 들면 그리스인 로빈슨을 쓴 프리샤리는 『태평양의 은둔자』에서 젊고 귀여운 금발의 여인을 등장시켜 섬에서의 고립된 생활을 보여주고 현실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실험한다. 지로두는 『수잔과 태평양』에서 여성인 수잔을 등장시켜 로빈슨에게 감각적으로 접근한다. 더 나아가 발라드는 『콘크리트 섬』에서 도시에 살고 있는 로빈슨의 비참한 종말도 보여준다. 또한 로빈슨류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인 투르니에의 『방드르디』에서 로빈슨은 섬에 남고 방드르디가 섬을 떠나 문명사회로 귀환하는 것과 쿿시의 『적대자』에서 수잔 바턴이 여성의 눈을 통해 로빈슨을 솔직한 시선으로 들여다본다. 영화 『캐스트 어웨이』는 섬에 난파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현대성을 부여하면서 응시하고 『로스트 인 스페이스』에서는 로빈슨이 우주선의 선장이 되어 또 다른 우주를 탐험한다.

5. 나가는 글

로빈슨의 고립은 순수한 사람이 섬으로 추방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프라이데이의 출현은 그것의 보상이다. 프라이데이와 로빈슨의 섬 생활은 축복의 상황이다. 로빈슨이 프라이데이와 보낸 시간을 행복하다고 한 것은 프라이데이의 출현으로 그의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자신의 자아에 대한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로빈슨은 프라이데이가 사라지는 두려움도 느낀다. 로빈슨이 섬의 동쪽 언덕에 올라 대륙을 바라볼 때 프라이데이의 눈은 빛나고 로빈슨은 프라이데이가 자신을 버리게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두 인물의 이런 관계는 이 소설 이야기의 마무리 단계에서 드러나는 관계지만 사실은 이 작품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가의 전략이기도 하다. 우리는 로빈슨이 노예가 되고 노예인 프라이데이가 주인이 되는 역학관계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두 사람의 관계와 입장을 받아준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의 정체성이 서로 겹쳐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 또한 타자의 역할에 새로운 해석을 하게 만드는 동기를 제공해준다. 결과적으로 섬에는 여성이 부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로빈슨과 프라이데이의 관계를 텍스트 속에 나타난 부재와 침묵 그리고 남성간의 성과 신체의 관계로 연결해 보았다. 그런데 이들의 관계를 넘어서 텍스트와 소설의 문제로 돌아가면 우리는 소설의 경험적인 세부사항이 논의의 대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소설로서의 텍스트와 작가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작가 디포는 자신이 상상한 성과 섬의 세계를 인식하지 않고 속임수와 생략을 통해 독자를 성으로부터 침묵하게 만든다. 로빈슨과 프라이데이를 식민지적이고 남성의 관계로 인도하지 않고 로빈슨의 고독에 중요성을 둔다. 이것은 실제 소설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과 비교할 때 로빈슨과 프라이데이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사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간의 정서적인 중심이지 로빈슨의 고독한 생활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라이데이의 출현이다. 그렇지만 그는 소설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로빈슨 신화의 주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로빈슨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원본에 대한 불만이나 대안으로 다양하게 이야기

가 변형되는 이유일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비평가들이 로빈슨의 고독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고 있다. 특히 『소설의 발생』에서 이언 와트는 이 소설을 소설의 발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개인주의 소설의 원조로 보고 여러 장을 할애한다. 이것은 로빈슨을 경제적인 인간으로 상정하고 그의 행동과 모험 그리고 종교적인 우화로서 소설에 등장하는 로빈슨의 정신적인 성장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비평가와 소설가는 로빈슨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의 초점을 프라이데이에게 맞춘다. 그 경우 프라이데이는 영문학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면서도 가장 적게 이해되어진 인물일 것이다. 이 글에서 볼 수 있듯이 로빈슨과 프라이데이의 관계를 식민주의적인 관점과 남성의 신체와 성의 관계만으로 충분히 많은 내용이 만들어진다. 두 주인공의 동성 문제는 작가가 남성간의 성을 하위의 범주에 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소설의 담론 전략이 남성간의 성을 부재와 생략 혹은 침묵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작가의 단점은 소설의 등장인물이나 주변 인물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는 계기가 된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참고문헌

- 게오르크 루카치, 『문제는 리얼리즘이다』, 홍승용 역, 실천문학사, 1996.
- 롤랑 바르트, 『텍스트의 즐거움』, 김희영 역, 동문선, 1999.
- 레비-스트로스, 『야생의 사고』, 안정남 역, 한길사, 2003.
- 마이클 하트, 『들뢰즈의 철학사상』, 이성민, 서창현 역, 갈무리, 1996.
- 막스 베버, 『막스베버 선집』, 임영일, 차명수, 이상률 역, 까치, 1991.
- 미셸 푸코, 『성의 역사: 자기에의 배려』, 이혜숙, 이영목 역, 나남출판, 1994.
- 미셸 푸코, 『광기의 역사』, 이규현 역, 나남출판, 2005.
-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나남출판, 1995.
- 움베르토 에코, 『소설 속의 독자』, 김운찬 역, 열린책들, 1996.
- 이언 와트, 『소설의 발생』, 전철민 역, 열린책들, 1988.
- 질 들뢰즈, 『프루스트와 기호들』, 서동욱, 이충민 역, 민음사, 1997.
- 프로이트, 『쾌락 원칙을 넘어서』, 박찬부 역, 열린책들, 1997.
- 프로이트, 『꿈의 해석』, 1, 2권, 김인순 역, 열린책들, 1997.
- 페터 뷔르거, 『지배자의 사유』, 김운상 역, 인간사랑, 1996.
- 피에르 마슈레, 『문학생산 이론을 위하여』, 배영달 역, 백의, 1994.
- 피에르 부르디외, 『혼돈을 일으키는 과학』, 문경자 역, 솔, 1994.
- Bogue, Ronald, *Deleuze and Guattari*, London: Routledge, 1990.
- Constantin V. Boundas & Dorothea Olkowski, ed., *Gilles Deleuze and the Theater of Philosophy*, N Y: Routledge, 1994.
- Cowart, David, *Literary Symbiosis*, London: The U of Georgia Press, 1993.
- Davis, Colin, *Michel Tournier: Philosophy and Fic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88.
- Defoe, Daniel, *Robinson Crusoe*, New York: Norton & Co, 1994.
- Deleuze, Gilles, *The Logic of Sense*, N Y: Columbia UP, 1990.
- Deleuze, Gilles and Guattari, Felix,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Minneapolis: U of Minnesota, 1991.
- Deleuze, Gilles and Guattari, Felix, *Anti-Oedip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Minneapolis: U of Minnesota, 1997.
- Frank H. Ellis, ed.,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 of Robinson Crusoe*, New Jersey: Prentice-Hall, 1969.
- Goodchild, Philip, *Deleuze and Guattari: An Introduction to the Politics of Desire*, London: SAGE P, 1996.
- Jardine, A, *Gynesis: Configurations of Woman and Modernity*, Ithaca: Cornell UP, 1985.

McKeon, Michael, *The Origins of the English Novel 1600-1740*, Baltimore: The John Hopkins UP, 1987.

Roger, Pat, *Robinson Crusoe*,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79.

KCS I

The Problems of the body and sexuality in the Text

— in the study of *Robinson Crusoe* —

Ik-Soon, Chung

This thesis is aiming at studying the ubiquitous problems comparing discourses between Defoe's *Robinson Crusoe* and articles derived from many points of view. There are many problematic strata or ubiquities in ideas and theories about this novel showing different sexuality and abject relationship in two men living on a cast away island. Defoe is the single writer who is usually pointed to as the originator of the English novel. And *Robinson Crusoe* starts with the strange story of the industrious man on the island who spends his days listing his provisions and walling himself deeper into his isolation against a danger. This story becomes a background that places him in an ideal position to negotiate between virtual or utopian world and real world, and produces many writers and critics who rethink the visionary and the pragmatic in the same source.

As I wrote here many writers and critics argue that *Robinson Crusoe* seems like the wrong locus to begin a consideration of the origin of the novel. Because this work is atypically so devoid of society and human interaction silencing its absence and sexuality between men, so full of lists and micro-observations and the oddity of this own life, and so filled with disguise, indirection, deceit, and duplicity that seems to place Robinson constitutionally at the center of questions about the truthfulness of narratives, the problem of framing and ambivalence, and the breakdown of signification and reliability. Consequently, this form is distorted by inaccurate readings which are motivated by the search for a faithful replica of the object. It is important to realize that Defoe did not actually say some of the things in his work and supplies his successors with images to write later as a result.

Key Words: ubiquity, sexuality, isolation, absence, ambivalence